

북해게르만어 연구

박상배(동덕여대)

1. 들어가는 말

북해게르만어(Das Nordseegermanische)라는 언어개념은 독어권에서 간행된 독어사 관계의 서적이나 기타 연구물에서 조금씩 다르게 해명 내지 설명되고 있어, 독어발달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심지어 연구자들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E. Schwarz는 게르만어를 Gotonordisch, Nordseegermanisch, Binnengermanisch로 3분류할 것을 제안했으며, F. Maurer는 Nordseegermanisch, Weser-Rhein-Germanisch, Elbgermanisch, Nordgermanisch, Oder-Weichsel-Germanisch로 5분류할 것을 제안했는데, 후자의 경우 북해게르만족의 갈래로서 Friesen, Angeln, Sachsen을 들고 있고 Sachsen의 일부가 Weser-Rheingermanen의 직계인 Franken에 통합된 것으로 그의 계보수를 정리해놓고 있다.¹⁾

작센어가 온전한 북해게르만어인지 절반의 북해게르만어인지를 두고 벌어진 논쟁²⁾은 언어소에 대한 시각여하에 따라 벌어진 한편의 언쟁으로서 무승부로 끝난 판국이지만, 북해게르만어 자체의 변별인식소들은 논쟁전후를 막론하고 의연히 엄존하고 있는 만큼, 본 논문에서는 변별소들을 한자리에 묶어 북해게르만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두려고 한다.

1) Vgl. 박상배·정은이: 독어음운사, S.91.

2) Vgl. besonders H. Kuhn: Zur Gliederung der germanischen Sprachen. In: ZfdA 86(1955), 1-43, bes. 36-44. Erik Rooth: Nordseegermanische Beiträge. Stockholm 1957.

2. 본론

북해게르만어는 어느 연구서·논문들에서나 네 개의 하위 언어군으로 갈래잡기가 되어 있는데, 고대영어(*das Altenglische*), 고대프리젠어(*das Altfriesische*), 고대네델란드어(*das Altniederländische*), 고대저지독어(*das Altniederdeutsche*)가 그것들이다. 고대네델란드어는 민족명을 따를 때는 고대저지프랑크어(*das Altniederfränkische*)라 부르고, 고대저지독어는 그럴 때 고대작센어(*das Altsächsische*)라 부른다. 이 언어들이 모두가 북해(Nordsee)에 연결해 있기 때문에 민족보다는 위치 및 지역을 돈독히 하고자 할 때는 북해게르만어라는 명칭을 선호한다. 각개의 민족명으로는 융합될 수 없는 면을, 북해게르만어라는 한지역적(限地域的)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 내지는 편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언어의 특징적인 공통소들, 즉 언어소들이 함께 의연히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언어요소들, 이른바 북해게르만어의 변별소들을 한자리에 모아 음운, 형태, 통사부로 나누어 세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독일학계의 묵은 논쟁대상인 고대작센어의 정체성에 대한 해명을 위해 응분의 결론을 웬만큼 제공해 주리라 사료된다.

2.1. 비음소멸현상(Nasalschwund)

무성음의 마찰음들 앞에서 비음이 탈락되면서 선행모음이 대신 길어지는 현상, 이른바 비음소멸현상이 북해게르만어에 소속된 언어들에 일제히 나타나고 있다. 이 음운현상은 비단 이 언어들뿐만 아니라 고대북방어에도 나타나고 후기고고지독어시기 이래로 슈바벤어와 알레만어에도 나타난다. 이 현상은 한편 바이에른어와 중부프랑크어, 상부프랑크어에는 거의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흔적으로만 비칠 뿐이다. Wrede는 북방어들과 슈바벤·알레만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와 관련된 모종의 일치점들을 두고 서게르만어의 전 지역이 한 때 잉베온어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오판했던 일은 독어학계의 소문난 사건으로서 이 부문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둔 사람들

은 다 알고 있는 해프닝이다. 서게르만어가 로마제국이 멸망한 후에 일종의 잉베온어의 단일체를 형성했었고 이 단일체가 그 다음 고트족의 진입에 의하여 고트어가 쇠기(“언어쇠기”)처럼 박히어 이분됨으로 해서 바이에른영역들과 프랑크영역들로 양분되기에 이르렀다는 가설을 그가 내세웠던 것이다. 이 견해는 차후 Babenberger, Maurer, Wolff, Frings 등의 학자들에 의해 오류로 해명되었다. 비록 Bretschneider와 Brinkmann 같은 연구자들이 동조하긴 했으나 오늘날 이 두 언어그룹의 비음소멸현상은 새로운 공동현상이 아니라 상이한 시기에 서로 독립적으로 이행된 옛 공통경향의 실현임이 판명되었다. 다시말해, 게르만어 마찰음들 f, s, þ 앞에서의 비음소멸현상은 잉베온·서게르만어의 ‘소유재’가 아니고 주로 잉베온·북해게르만어의 그것이다.

Ags.	Afries.	As.	Got.	Ahd.
fif	fif	ffif	fimf	finf
ūs	ūs	ūs/uns	unsis	uns
ōþer	ōdar	ādar/andar	anþar	andar
sīþ	sīth	sīd	sinþs	sind

위의 예증들에서 명백히 볼 수 있듯이, 고트어와 고고지독어에서는 비음소멸현상이 부재하고 있는 반면 양글작센어, 고대프리젠어에서는 그것이 어느 경우이든 존재하고 있다. 한편 고대작센어는 비음소멸현상과 비음현상이 공존하고 있어 특이한 면을 제시하고 있다.

2.2. 찰음화현상(Zetazismus)

2.2.1. 찰음화현상³⁾에 대한 문제성을 두고 백여년 동안 연구가 거듭되어 왔

3) Assibilation, Affrizierung, Mouillierung, Palatalisierung이라 하기도 한다.

다. 그 시발은 야콥 그림(Jacob Grimm)부터이다. 그는 몇몇 지역명들에서 이 음운현상을 밝혀내었고,⁴⁾ 그 후 거듭하여 연구를 계속했다. Grimm 이후 많은 연구물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A. Lasch와 E. Rooth의 업적이 주목을 요한다. 두 연구가들의 연구결과는 서로 많은 점에서 보충해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대치되는 입장에서 있고, 1945년 이후의 제 연구물들은 제마다 이 두 입지점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고 있다.

게르만어 후두음(喉頭音; Guttural) k, g(폐색음)는 연구개음(Velar)이다. 이 음들은 고대영어와 고대프린첸어에서는 몇몇 경구개음 환경에서는 경구개음화 되는데, 즉 일체의 전설모음들(i, e, ae)앞의 두음에서, 원래부터 후속하는 i, j앞의 중간음, 그리고 전설모음들 뒤의 중간음이나 말음에서, 뒤에 후설모음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

2.2.2. 이 음운현상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단정을 내릴 수 없긴 하나 몇몇 연구가들의 ‘상대적 연대기’(Relative Chronologie)를 갖대로 삼을 수는 있다. Hans Pinsker는 이렇게 말한다: “i-변모음에 의해 전설화된 모음들앞에서는 ‘경구개음화(Palatalisierung)’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현상은 그러니까 6세기 전에 발생했음이 틀림없다.”⁵⁾ K. Luick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상대적 연대기는 H. Penzl과 K. Brunner의 음운적 해명과 연대기에 잘 맞물린다. 음운 k에 대한 펜즐의 말을 우선 들어 보자: “우리는, 원고대영어(Proto-Old-English)의 /k/는 위치에 따른 두 개의 변이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한다. 즉, 경구개모음 앞에서 경구개변이음[k̟]와 연구개모음 앞에서의 연구개변이음[k̠]를”⁶⁾ “게르만어 /k/의 두 변이음들은 i-변모음이 원고대영어에 경구개모음들의 분배를 변화시킨 이후에 분리된 음소들이 된다. 경구개음 [k̟]의 음성적 전개가 아닌, 연구개음 [k̠]을 포함한 분배적 변화가 음소적 분열의 완성을 야기시켰다.”⁷⁾ “게르만어 g의 연구개

4) J. Grimm, ZfdA 7(1849), S.659ff. Zur Literatur bis 1945, siehe H. Wesche, Zetazismus, 1960, S.230ff.

5) H. Pinsker: Altenglisches Studienbuch, S.40.

6) H. Penzl, Split, 1947, S.38.

7) Ibid. S.34.

와 경구개 변이음들의 파생음들은 그 분배가 게르만어 k의 변이음들의 파생음들과 상응한다.”⁸⁾

음운 g에 대한 발언들도 음운 k에 대한 그것들에 병행한다. 펜즐은 말하고 있다: “게르만어 g의 연구개변이음과 경구개변이음 파생음들은 게르만어 k의 변이파생음들과 상응한다.”⁹⁾ 부룬너는 이 구조주의적 명제를 그의 문법서에 받아들이고 있다: “이 분열은 분명 단지 발음에 있어 위치에 따른 변이음들로 진척되며, i-변모음이 관찰되어서야 비로소 후속모음들에 개입하지 않고 병존하는 별다른 음소들에 이른다.”¹⁰⁾ 분열된 전설음들(Palatale)의 음소화과정과 i-변모음 사이의 음운론적 인과성이 이들의 관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펜즐과 부룬너가 그 점에 있어 정당하다면 원래의 전설음화가 i-변모음의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산정해도 좋을 것이다. 전설음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펜즐의 발언을 계속 들어보자: “tz, dz대신에 c, cz의 등장, 차용어에 있어 고대불어의 ch대신에 c의 대응은 c가 때때로 원래의 [k] 또는 [k̄]로부터 멀리 옮겨온 음가, 아마도 [tj] 또는 [tʃ]에 근접한 음가를 가졌음을 밝혀준다.”¹¹⁾ k에 대한 이 발언과 병행하는 g에 대한 발언을 함께 연이어 들어보면 펜즐의 의도를 더욱 깊이 감지해 낼 수 있다: “간자음그룹(medial cluster)속에서의 변이음 [g̃]의 치찰음(Sibilant)으로의 음성적 발전은 변이음 [k̄]의 [tʃ]으로의 음성적 변화와 병행한다.”¹²⁾ 펜즐은 연이어서 말한다: “...g의 이 분열은 전설음의 변이음 [g̃]가 게르만어 j와 합일된 이후 음운적 병합·결합에 당도한다.”¹³⁾ 고대영어, 즉 주로 양글작센어의 테두리 내에서 관찰된 이 음운과정은 고대프리젠어에도 통용될 것임이 분명하겠다. 게르만어 후설구개음 k와 g의 경구개음화가 발생하여 진척되었는지는 고대프리젠어로 씌어진 유작물들이 뒤늦게 전수되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긴 하나 그것들 속에 전거된 습음화(濕音化: Mouillierung;

8) Ibid. S.39.

9) H. Penzl, Ibid. S.39.

10) K. Brunner, Grammatik, 1965, S.167.

11) H. Penzl, Split, 1947, S.37.

12) Ibid.

13) Ibid.

Jotazierung)의 현상, 치찰음들(Zischlaute; Sibilante), 치음파찰음들(Dental-affrikata)은 고대영어에서와 유사한 발전상황들을 충분히 제시한다.¹⁴⁾

2.2.3. 문제는 이제 이른바 ‘앙그로프리젠어’(Anglofriesisch)의 이 특수현상이 고대작센어에도 통용되는지, 또 통용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살펴보는 일이다. 쿤(Kuhn)이 »Gliederung«(1955/56)에서 그의 주장을 확고히 하기 전에 그는 이미 한 강연(1951)과 한 서평(1952)에서 슈바르쯔의 분류법을 폄하했다. 그 주요 증빙으로서 그는 전설모음들 앞에서의 k의 ts 또는 tʃ로의 전위를 제시했고 이 현상은 양글작센족의 이주보다 시기가 늦은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그는 여기에서 이 양글작센어와 고대프리젠어의 새 현상이 양글작센족이 이미 섬으로 건너가 있을 때 비로소 북해를 건너 간 것으로 입지점을 두고 있다. 그는 슈바르쯔의 견해를 두고 이렇게 비판한다: “슈바르쯔는 물에 대해서 과도한 공경심을 보인다.”¹⁶⁾ “그는 영국내의 식민지들을 제외한다. 그는 점령전에 영국에 기존했던 북해게르만어영역만을 생각하고 있다.”¹⁷⁾ 쿤은 찰음화현상의 중심지역이 영국이며 여기에서 카롤링어시대 이후에야 비로소 프리젠어가 예의 ‘음파’(Lautwelle)를 수용하기 시작하고 작센어는 이에 약하게 따르고 있다고 간주한다. 이 현상의 핵심지역이 영국의 전 지역이 아니고 다만 남부지역인 바, 북영국은 그 파동을 덜 받았고 프리젠지역의 핵심영역에서는 매우 강했으나 남부의 영국보다는 비교적으로 약했다고 보고 있고 북프리젠지역과 작센지역으로는 약한 파동이 당도했다고 본다. 서사시 「Heliand」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여타의 고대작센어 텍스트상에조차도 이 음운현상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은 쿤의 논조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14) Vgl. W.Steller, Grammatik, 1928, S.4f., 31ff.

15) Vgl. H. Kuhn, Rezension, 1952, S.49.

16) Ibid. S.46.

17) Ibid. S.49.

2.3. S-복수형(S-Plural)

s-복수형이 북해게르만어의 변별소들의 하나인지는 아직 논의를 끝낸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대프리젠어가 이 경우에 이상하게도 여타의 북해게르만어와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a어간들과 ja어간들의 남성1격, 4격에는 고대작센어와 앵글작센어는 s형태들을, 고대프리젠어는 그에 반해 외관상 s 없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Ags.	Afries.	As.	Ahd.
dagas	degar	dagos/dagas	taga/tagā
mdl.	mnd.		
nestas	vründes		
zacs	knechtkens		
vlas	bödels		
stoels	dêgels		

제일 먼저 고대프리젠어의 복수형에 유의해 본다. 세 가지 주형태들이 있는데, -ar/-or와 -a, 그리고 -an/-en이 그것들이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전거로 등장하는 형태가 -r복수형, 즉 -ar/-or이다. 이 형태에 대해서는 1945년 이전의 연구물들이 다음과 같은 숙고와 성과를 가져왔다. 프리젠어가 그 복수형을 가령 원게르만어 -ōs로부터 승계했다면, 거기에서 프리젠어는 -as가 되었을 것이다. 프리젠어에는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프리젠어의 형태는 원게르만어 -ōz에서 출발한 것임이 분명할 터이다. 그러나 프리젠어에는 말음의 원게르만어 -z(>r)는 고대작센어나 앵글작센어, 그리고 고고지독어에서처럼 소멸하며, 따라서 이 결과로 -a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형태는 정작 고대프리젠어에 증빙되어 있다. 문제로 남는 것은 어디서 r형태가 유래한 것인지를 따지는 고대프리젠어 r복수의 전 단계로

서 원게르만어 *-ōzez*를, 고트어 *-ōs*와 고대북방어 *-ar*의 전단계로서 원게르만어 *-ōz*(<idg. *ōs*)를 접맥시켜놓고 있다. “이 프리젠어의 복수어미 *-ar*에 맞먹는 것이 이웃 방언들의 복수어미들, 즉 고대작센어 *-os*, 고대영어 *-as*, 옛 *-ōses*이리라.”¹⁸⁾

s-복수형이 북해게르만어의 전형적인 형태소인지에 대해서는 이렇듯 고대프리젠어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확정을 내릴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이 오늘날 현대영어의 명사들에 있어 복수형의 전형이 되어있는 만큼, 계속 탐색되어야 할 부문이 아닐 수 없다.

2.4. 단일통합격(Einheitskasus)

북해게르만어의 언어징표의 하나로서 격이 통합형을 지향하는 성향을 통상 지적한다. 그 현상을 두고 ‘격 융합’(Kasusverschmelzung) 또는 ‘격 단일성’(Kasuseinheitlichkeit)이라 부르고 있다. 1945년까지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형태적 현상의 문제에 있어 일반적으로 일인칭과 이인칭 단수의 인칭대명사들에 있어 3격과 4격이 하나의 형태로 융합되어 있는 모습을 두고 이 현상에만 관찰을 한정했다.¹⁹⁾ 뫼르스테(Wilhelm Foerste)만이 3격의 형태들에 있어 단수형과 복수형의 조정과정에도 잠시 시선을 주었다.²⁰⁾ 코르테스, 로트, 달, 뤼젤은 3격의 단·복수형태들과 약변화의 단수 남성·중성의 격형태들에 나타나는 여타의 단일성들에도 주의를 돌렸다. 특히 달과 뤼젤은 북해게르만의 단일성으로의 경향과 고지독어의 탈단일성으로의 경향사이에 처한 고대작센어의 상황을 서로 세별적으로 달리 관찰하고 있어 그들의 논쟁은 이 연구방향에서 정점에 당도한다.²¹⁾ 달의 입지점은 고대작

18) H. Möller, Declination, 1880, S.505 인용문에서 x'는 비강세음을 표시한다.

19) 이 현상을 처음 관찰한 사람은 F. Wrede이다. Vgl. F. Wrede, Inwäonisch, 1924, S.272ff. Vgl. H. Steinger, Sprache, 1925, 23; L. Wolff, Stellung, 1934, S.143f.

20) Vgl. W. Foerste: Untersuchungen(1950), S.71ff.

센어의 형태물들에 나타난 이원성(Dualität)내지 ‘양안성’(兩顔性: Zwiesichtigkeit)을 운운하고 있다.²²⁾ 반면, 퀘젤은 고대작센어가 종합적·분석적으로 어형변화를 이원적으로 하는 혼합어(Mischsprache)임을 강조하면서 이 경우에도 작센어와 고고지독어의 밀착된 단일성을 더욱 전경화하고 있다.

2.5. 단일복수(Einheitsplural)

북해게르만어의 단일성화과정의 하나로서 형태론적 현상인 ‘단일복수’를 들 수 있다. 위에서 통합격에 대해서 이미 운위했는데, 단일 격(Einheitskasus), 단일 수(Einheitsnumerus), 단일 성(Einheitsgenus)과 더불어 단일 복수도 북해게르만어의 단일성 성향에 있어 중요한 한 특징이다. 단일 격에 있어서 그랬듯이, 이 북해게르만어의 징표는 Wrede이후²³⁾에야 비로소 언어연구가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Wrede는 당시 북방의 단일형태들과 남방의 3원화의 형태들(Dreiheitsformen) 사이의 대립을 강조했는데 기묘한 알레만어의 단일형태들(‘Einheitsformen’)은 비음소멸현상(Nasalschwund)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이른바 ‘고트화’(Gotisierung)에 의해 파손되지 않은 ‘잉베온·서게르만어’(Ingwäonisch-Westgermanisch)의 잔재로 해석했다. 오늘날의 연구현황에 따르면 알레만어의 단일형태들은 잉베온·북해게르만어와 직접 연계시킬 수 없음이 거의 확고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연대기적으로 보아 Wrede의 명제는 받아들여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 문제점 이외에도 여러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단일형태들의 지역적 차이

21) I. Dal: Zur Stellung des As. und der Heliandsprache. In: NTS(1954), 410-424, L. Rösel: Die Gliederung der germ. Sprachen. Nach dem Zeugnis ihrer Flexionsformen(Erlanger Beitrag zur Sprach- und Kunstwissenschaft 11), Nürnberg 1962. Bes. S.79-104, 121-128.

22) I. Dal: Zur Stellung des As. und der Heliandsprache. In: NTS(1954), S.410-424.

23) F. Wrede: Ingwäonisch, 1924, S.275(Pause 6)

들, 원발생지의 문제, 발생연대, 비음소멸과 연관된 음운형태적 및 형태음운적 연계성, 변모음과 관련된 문제 등이 있다.

2.6. 기타의 단일성

단일 격과 단일 복수와 병행하여 단일 성(單一性:Einheitsgenus)도 북해게르만어의 중요한 언어징표의 하나로 통하고 있다. 이는 성(性)을 평등화하여 같게 하는 성향으로서, 이 현상은 강변화 형용사의 단수 1격의 형태들에서 보이는 바, 통시적으로 볼 때 영어와 프리젠어와 전반적으로 상관되고, 공시적으로 볼 때는 특별히 고대작센어의 현상으로서 지금까지 그와 같은 명명법을 감행한 연구자가 전무하기에 시범적으로 그 명명법을 시도한다. 물론 오래 전부터 고대영어와 고대프리젠어, 고대작센어에 등장한 대명사어미 없이 ‘짧은’ 형태들을 이 언어그룹의 특수향으로, 대명사어미를 갖춘 고고지독어 ‘긴’ 형태들을 그것의 대형물(Gegenbildung)로 보아왔다. Rooth, Dal, Markey는 특히 서사시 「Heliand」에 분명히 나타난 바 대명사어미의 탈락현상을 북해게르만어의 한 중요한 지표로 간주했다. Foerste와 Krogmann도 이를 인정했다.²⁴⁾ 심지어 Rösel도 이를 물론 자기 이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들이긴 했을지언정 이 현상을 언급한 바 있다.

2.7. 재귀대명사의 부재(Das Fehlen des Reflexivums)

2.7.1. 이 현상은 잘 알려진 북해게르만어의 징표인데 고대영어, 고대프리젠어, 고대작센어, 중세네델란드어가 이를 함께 하고 있다. Grimm이후로 정평있는 언어연구자들이 이 사실에 종사했지만, Wrede가 비로소 자신의 명제인 잉베온·서게르만어요소들에 대한 입증을 위해 이 사실을 강조했다. 고트어는 분명히 자체의 고유한 재귀대명사를 가지고 있고 고대북방어도

24) Vgl. Pack, Sang Bea: Studien, S.164ff.

그러하다.

	Got.	An.
Gen.	seina	sín
Dat.	sis	sér
Akk.	sik	sik

고지독어와 비교해 볼 때 재귀대명사가 일부 결하고 있는데, 즉 3격에서 그렇다. 이 경우에는 인칭대명사의 3격의 형태들이 재귀적으로 응용되어 대신 사용되고 있다.

2.7.2. 사정이 이러함에 Wrede의 말에 따라 이렇게 맞장구를 칠 수는 있다. 고지독어에서 3격의 imo등과 4격의 sich가 공존하고 있으며 3격에서는 ‘잉베온어’가 4격에서는 고트어가 교차하고 있다. ‘잉베온어’가 알프스영역에까지 증빙이 된다, 고. 바이에른어에는 3격의 sir와 4격의 sich가 나타난다. 그것은 고트어의 sis, sik의 병존물의 잔여이다, 고. Frings는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정말 매혹적이다! 하지만 이 견해는 오류이다.”²⁵⁾ 프링스의 주요 논쟁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고지독어에 있어 인칭대명사·재귀대명사 3격은 특수한 서게르만어 현상들에 기인한다; 바이에른어의 sir/sich 병존은 근자의 신조형이다; 남독일의 sich는 고트족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고 오래된 토착소이다. 그의 예증은 문제성이 없진 않으나, 오늘날의 공통견해의 구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 독자적인 재귀대명사가 결여되고 있는 현상은, 그러나 그의 말대로 ‘잉베온·서게르만어’의 요소가 아니고 오늘날의 주된 견해를 따라 ‘잉베온·북해게르만어’의 변별적 요소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25) Th. Frings, Grundlegung, 1950, S.36.

2.8. 북해게르만어의 통사적 특수성

2.8.1. 통사면에서 북해게르만어가 보여주는 변별적 자질을 Hermodsson이 그의 연구서에서 특히 종장에서 서술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작센어에는 인칭 및 재귀대명사의 3격형과 동사가 접맥된 경우들이 아주 빈번하며 반면에 일반적으로 4격과의 연결된 경우는 비교적 무의미한 역할을 맡고 있다.²⁶⁾ 둘째, 고대작센어에는 사건 재귀동사와 비인칭 재귀동사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사건 재귀동사란 심리적 과정을 표현하는 인칭주체를 가진 재귀동사를 말하며, 북해게르만어들에서는 보통 자동사들이 사건 재귀동사를 대체하고 있고 비인칭 재귀동사란 인칭적 주체가 없는 재귀동사를 말하며,²⁷⁾ 사물이 주체로서 등장한다. 셋째, 재귀동사들에 비해 자동사들을 선호하고 있는데, 다시말해 4격 재귀대명사와의 연결체를 선호한다. 이런 사정들은 고대작센어의 재귀대명사들의 사용이 고지독어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달리 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고고지독어 및 중고지독어에서는 3격 재귀대명사 연결체들이 고대작센어처럼 함축성이 없고 그에 반해 4격 재귀대명사 연결체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사건 재귀대명사들과 비인칭 재귀대명사들이 현저히 많다. 고대작센어는 이와 관련하여 앵글작센어, 고대프리젠어, 중세네델란드어와 가까이 서 있다는 점은 언급할만한 일이다.

2.8.2. 고대작센어에 독자적인 재귀대명사가 결여되어 있는데,²⁸⁾ 이 언어현상이야말로 더 이상 Wrede처럼 잉베온·서게르만어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잉베온·북해게르만어의 변별적 상황으로 파악해야 한다. 저지독어와 네델란드어에는 고지독어 재귀대명사가 수용되었고 영어에서는 잘 알려

26) 「Heliand」에는 3격 재귀대명사와의 연결물이 322개, 이에 반해 4격 재귀대명사와의 연결물은 단지 30개에 불과하다.

27) Vgl. Hermodsson, S.115ff.

28) 이 경우 소텍스트들의 고대작센어는 물론 심지어 서사시 「Heliand」도 마찬가지이다.

져 있다시피 특별한 재귀대명사가 3인칭은 물론 1인칭, 2인칭에서도 새로이 형성되었는 바 myself, yourself, himself 등이 그것들이다. 오늘날의 프리젠어는 비록 저지독어로부터 차용한 sik를 여기저기서 만나게 되지만, 3인칭의 인칭대명사를 재귀적 의미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북해게르만어에 있어 고유한 재귀대명사의 부재를 두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Frings는 Wrede와 논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명을 시도했다: 통합격의 지역에서 3격과 4격이 지시대명사 se와 병합되었다, 앙글작센어 me(3격, 4격), de(3격, 4격)와 같이 재귀대명사 *se가 존재했다, *se에 나란히 또한 *se(3격) *sek(4격)이 육지에서는 선재했을 터이다, 이 재귀대명사 *se가 필시 수용적 근거에서 인칭대명사에 의해 대치되었을 것이다, 고고지독어 imu, iru, in(3격)과 sih(4격)의 병행은 *se sik(<*s다)에 근거를 두고 있고, 앙글작센어 me mec과 그리고 고대작센어 mi mik등과 평행한다.

3. 맺는 말

이상으로 북해게르만어의 특징적인 언어요소들을 범박하게나마 부분별로 관찰해 보았다. 앙글작센어와 고대프리즈어가 제시한 단일성은 위의 관찰 대상의 전 부문에서 고대작센어도 또한 함께 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나는 한 언어의 소속 단위체를 결정함에 있어 음운부, 형태부, 통사부의 각 언어부문에서 그 어느 부문도 경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잣대로 그 부문들의 각개 요소들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며, 다만 어휘부(Lexikologie)에 있어서 만든 당해 언어가 주변의 타 언어권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의 본문에서 제외시켰음을 이 자리에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 Bischoff, Karl: Zu mnd. ūs und uns. In: Fs. für Ludwig Wolff zum 70.Geburtstag, Neumünster 1962, S.55-72.
- Cordes, Gerhard: Die sprachliche Stellung des Altsächsischen. In: Olaf Klose(Hrsg.), Geschichte Schleswig-Holstein, Bd.3(1057), S.8-15.
- Dal, Ingerid: Zur Stellung des Altsächsischen und der Heliandsprache. In: NTS 17(1954), S.410-424; I.D., Untersuchungen zur germanischen und deutschen Sprachgeschichte, Oslo/Bergen/Trosomsö 1971, S.74-85; Der Heliand, S.177-190.
- Frings, Theodor: Grundlegung eine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Halle 1950.
- Ders.: H-Pronomina. Eine ingwäonische Welle. In: Taal en Tongval 16(1964), S.100-102.
- Heeroma, Klaas: Ingwäonisch in niederländischer Sicht. In: NdJb 87(1964), S.7-23.
- Ders.: Zur Problematik des Ingwäonischen. In: FMS 4(1970), S.231-243.
- Jörgensen, Peter: Das Problem der Ingwäonen. In: Philologia Frisica 1957, S.7-14.
- Krogmann, Willy: Die friesische Sprache. In: Stammers Aufriß, Bd.1(1952), Sp.1523-1550, bes. Sp.1538-1539.
- Kuhn, Hans: Die sprachliche Stellung des Nordfriesischen (Vortrag), In: KblGv 58/2(1951), S.21.
- Ders.: Friesisch und Nordsee germanisch. In: UsWurk 4(1958), S.37-46.
- Ders.: Gliederung der germanischen Sprachen. In: ZfdA(1955), S.1-47, bes. 36-44; H.K., Kleine Schriften I, Berlin 1969, S.246-290.
- Ders.: Altsächsisch und Norseegermanisch(Inhaltangabe des in freier Rede gehaltenen Vortrags), In: Ndkbl 63/2(1956), S.25-26.
- Lane, George S.: Germanic weak verbs in -on: an archaism. In: Lg

- 32(1956) S.420-422.
- Lasch, Agathe: Palatales k im Altniederdeutschen. In: NeuphMitt 40(1939), S.241-318, S.387-423.
- Laur, Wolfgang: Die sächsischen Ortsnamen in Schleswig-Holstein. In: Olaf Klose(Hrsg.), Geschichte Schleswig-Holstein, Bd.3(1957), S.22-26.
- Ders.: Nordseegermanische lautliche Merkmale in den niederdeutschen Ortsnamen Schleswig-Holsteins. In: Fryske Studzjes, Fs. für J. H. Brouwer, Assen 1960, S.389-398.
- Lerchner, Gotthard: Studien zum nordwestgermanischen Wortschatz. Ein Beitrag zu den Fragen um Aufbau und Gliederung des Germanischen.(Mitteldeutsche Studien, 28), Halle 1965.
- Markey, Thomas L.: West Germanic He/Er - Hiu/Siu and english 'She'. JEGPh 71(1972), S.390-405.
- Ders.: Germanic dialect grouping and the position of Ingvaenic. (Innsbrucker Beiträge zur Sprachwissenschaft, 15), Innsbruck 1976.
- Öhmann, Emil: Der S-Plural im Deutschen. Helsingfors 1924.(Annales academiae Scientiarum Fennicae, 18/1)
- Ders.: Der friesische Plural auf -er, -ar. In: W. Schröder(Hrsg.), Fs. für Ludwig Wolff, Neumünster 1962, S.29-32.
- Pack, Sang Bea: Studien zur Sprachstruktur des Heland. Wien 1982.
- Penzl, Herbert: The phonemic split of germanic k in Old English. In: Lg 23(1947), 34-42.
- Pinsker, Hans: Altenglisches Studienbuch, Düsseldorf 1976.
- Rauch, Irmgard: Heliand i-Umlaut evidence for the dialect position of Old Saxon. In:Lingua 24(1969/70), S.365-373; Der Heliand, S.461-470.
- Schwarz, Ernst: Goten, Nordgermanen, Angelsachsen. Studien zur Ausgliederung der germanischen Sprache.(Bibliotheca Germanica, 2), Berlin/München 1951.
- Ders.: Die Gliederung der germanischen Sprachen. In: WW. 2(1951/52),

S.130-138.

Wesche, Heinnel: Zetazismus in niedersächsischen Flurnamen. In: Indogermanica, Fs. für W. Kreuse, Heidelberg 1960, S.230-248.

Zusammenfassung

Studien zum Nordseegermanischen

Pack, Sang Bea(Dongduk Women's Univ.)

Diese Arbeit zielt, darauf die nordseegermanischen Sprachmerkmale nach phonetisch-phonologischen, morphologischen und syntaktischen Indizien zu erhellen.

Erscheinungen wie Nasalschwund und Zetazismus stellen phonetisch-phonologische Besonderheiten des Nordseegermanischen dar, während z.B. der S-Plural die morphologische Charakteristik des Nordseegermanischen repräsentiert.

Erscheinungen wie Einheitskasus, Einheitsplural, Einheitsnumerus und Einheitsgenus stellen demgegenüber syntaktische Besonderheiten des Nordseegermanischen dar.

Ich halte die drei Domänen der Spracherscheinungen für gleichermaßen bestimmend im Hinblick auf die Struktur einer Sprache. Weil ich aber die Domäne der Lexikologie in diesem Zusammenhang für wenig entscheidend halte, habe ich die Frage des Wortschatzes in dieser Arbeit nicht berücksichtigt.